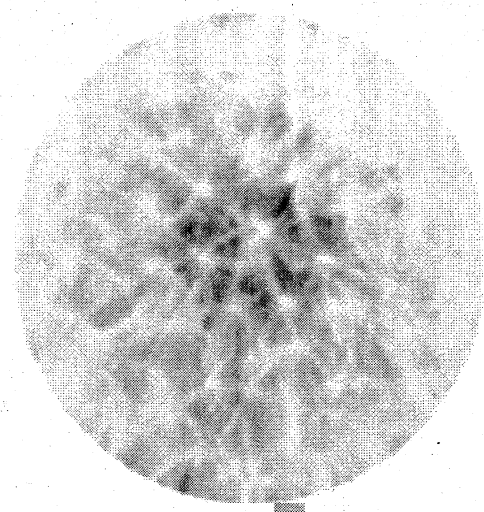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9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정기총회

2003년 5월 9~10일

아주대학교

내림비치

일정, 본회의 진행 순서, 안건 ... 1
9기 전여대협 의장 후보 결의서 ... 2
의사진행세칙 ... 3
전문, 강령 ... 6
규약 ... 7
시행세칙 ... 10
8기 전여대협 평가(안) ... 12
2003년 정세 ... 25
9기 전여대협 1년 나기(안) ... 33
9기 전여대협 예산안 ... 37

일정, 본회의 진행 순서, 안건

<일정>

9일

~18시 30분 집결
19시 전쟁과 여성 관련 강연 토론
22시 전여대협 의장 후보와 간담회 및 의장선출

10일

9시 본회의
12시 9기 전여대협 5,6월 사업계획 발제 토론
2시 반성폭력 문화제 주체 회의

<본회의 진행 순서, 안건>

개회
민중의례
서기단 선출
의사진행 세칙 공유
회순 통과 및 안건 확정
-강령과 규약, 시행세칙과 관련해
-1년 나기 토론 및 확정
-예산 심의 확정
-기타안건
회의록 채택
폐회

9기 전여대협 의장 후보 결의서

"새 시대의 요구를 투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우리대학 여학운동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학교에서 함께 하는 여학일꾼들, 더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에 빠져 혼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도, 함께 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저의 곁에 있었습니다.

'왜 동지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지 못했지! 더 힘들어 질 거란 미안함 때문에 어려워만 했구나!'.

전국의 여학일꾼들이 아직은 낯설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수련회에서의 살가웠던 모습, 전화 목소리 들으면 그립고, 만나면 더 보고 싶은…. 함께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며 힘이 되어주는 여학일꾼들이 있기에 웃으며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한 시 한 초가 다르게 급물살을 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살아 갈 것을 시대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하고 원통한 죽음과 피맺힌 절규.

한반도를 둘러싼 미제국주의의 더러운 야욕, 그리고 무고한 여성·어린이·양민을 희생시킨 미제를 위한 이라크전쟁.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걸음에서 더욱 드러난 수구기득권 세력들의 마지막 발악.

북녘 땅에서 어머니 언니들의 손을 맞잡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실감나지 않았던 남북여성통일대회.

너무나 많은 삶을 옭아매고 지금도 고통의 원인으로 남아있는 호주제.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착취하며 현대판 성노예를 강요하는 성매매.

척박한 노동현장에서 생채기 투성인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며 WTO개방으로 삶터마저 잃어버린 여성농민.

졸업이 두렵기만 한 여대생….

나의 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현재, 미래의 우리 모습이며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척박한 이 땅에 여학일꾼 스스로가 양분과 빛이 되어 살아갑시다. 그 선두에 여성민중의 등불 전여대협이 앞장서야 합니다.

지금 저는 제 혼자가 아닌 여러 동지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있을 수 있는 힘이며 원동력입니다. '새물'이라는 곡을 부르며 몸짓을 후배들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서로들 몸짓을 보고 엉
성하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함께였기에 유쾌하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비록 서툴지만 서로 배우며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의 곡들을 불러보며 이전보다 희망차고 밝다는 것을 느낍니다. 노래는 부르는 사람의 마음과 시대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끊임없이 투쟁하며 승리를 만들어야합니다.

민족사적 전환기입니다.

대중과 정세의 요구를 받아 50만 여학우가 함께 개척해 나갑시다.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50만 여학우의 대중조직 전여대협, 한결같은 모습으로 투쟁합시다.

언제나 힘차게 행동하며 실천하는 마음으로 9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결의합니다.

9기 전여대협 의장을 결의하며

민족 영남대학교 18대 자주적 총여학생회장 강정은하

의사진행세칙

1. 회의 진행의 원칙

(1) 회의 공개의 원칙

이에 따라 회의 공개·방청 공개·기록 공표를 실시한다. 단,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결정에 의한 사항이나 회원 징계에 관한 건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비공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2) 정족수의 원칙

각급 회의의 개회 정족수는, 유효인원(재적인원 중 사고 등을 제외한 인원) 과반수 이상을 개회 정족수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을 의결 정족수로 한다. 단, 규약에 명시된 주요 사안에는 출석인원 2/3 이상을 의결 정족수로 한다.

(3) 일의제의 원칙

회의는 한 가지의 의제만을 상정하여 다루고 두 가지 이상의 의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다루지 않는다.

(4) 발언 자유의 원칙

발언은 누구나 자유롭게 하고 제지당하지 않는다. 단, 필요한 경우 의장은 발언 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 이때 의장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공동 의안을 제출하여 가결(과반수 이상의 찬성)할 수 있다.

(5) 다수결의 원칙

(6) 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

(7) 일사부재의 원칙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을 그 회기 중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단, 번안(표결재심의 동의)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표결을 재심할 수 있다.

(8) 회기 불계속의 원칙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한 의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어지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단, 필요한 경우 기한부 연기 동의에 의해 다음 회기로 이월할 수 있다. 기한부 연기 동의 성립요건은 과반수로 한다.

2. 회의의 용어

(1) **회기(會期) :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개회(開會) : 회의 처음 시작을 말한다.**(단, 개의(開議) : 회의 중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것)

(3) **폐회(閉會) : 회의의 끝.** (단, 산회(散會) : 그날 회의의 끝)

(4) **휴회(休會) : 한 회기 중 며칠을 쉬는 것.** (단, 휴게(休憩) : 하루 중 잠깐 쉬는 것)

3. 정족수

선거 미실시로 인한 당연직 대의원 부재와 개인적인 탈퇴의사를 밝힌 대의원 등 사고로 인한 불참은 재적인원에서 제외한다.

4. 회의록 통과

전 회의록을 서기단장이 낭독하고 회원의 이의 여부 확인·정정·통과의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5. 의안 채택 방법 및 회순 통과

(1) 의안 채택의 순서에서 원안에 대한 삭제(기각) 동의안은 찬반 토론 없이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2) 의안 채택순서가 지난 후에 안건의 추가 상정과 채택은 찬반 토론 없이 출석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3) 의안 채택 및 회순 통과의 순서가 끝난 이후에 있어서의 회순 변경 동의안을 받아 찬반토론 없이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6. 의사진행과 관련한 규칙

(1) 발언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한다.
(2) 발언자는 소속, 성명을 밝힌 후 먼저 발언의 요지를 밝히고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한다.
(3) 각 안건에 대한 대표 찬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의사 진행 요원에게 신청하고 발언 신청자 중 일인씩을 의장이 지명한다.
(4) 발언시간은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각 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대표 토론 - 20분 이내
질의 답변 및 보충 토론 - 5분 이내
의사 진행 발언 및 기타 - 3분 이내
단,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대표 토론 발언 시간은 의장의 제안에 의해 참석한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발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발언자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질의 답변 - 3인 이내
찬반 토론 - 5인 이내
단, 의장의 제안으로 참석 대의원 1/2 이상의 찬성에 의해 발언 수를 늘릴 수 있다.
(6) 동일한 안건에 대한 동일인의 발언 기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로 한다.
(7)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고 중앙상임위들로 구성된 의사 조정위원회를 열어 처리한다.

7. 각 안건에 대한 일반적 토의 순서

(1) 안건 상정
(2)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
(3) 질의 및 답변
(4) 원안에 대한 찬반 토론
(5)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 종결(찬반 토론 없이 토론 종결시는 2/3)
(6) 개의안(수정안) 제출 여부 및 제안 설명(개의안의 작성은 중앙상임위의 확인으로 확정한다.)
→ 개의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원안에 대한 표결
(7) 개의안에 대한 질의 및 응답
(8) 개의안에 대한 찬반토론
(9) 토론 종결
(10) 개의안에 대한 표결
개의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한 표결

단, 제출된 원안과 다른 안이 상정되었을 경우는 다음과 같이 안건을 처리한다.
(1) 안건 상정
(2) 원안에 대한 제안 설명
(3) 질의 및 응답
(4) 상정된 다른 안에 대한 제안 설명
(5) 질의 및 응답
(6) 원안과 상정된 다른 안에 대한 단일 개의안 작성 여부를 중앙상임위와 상정된 다른 안 제출 대표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일 개의안이 작성되었을 경우 즉시 표결한다.
(7) 단일 개의안이 작성되지 않을 경우 각 안에 대한 지지 및 반대 발언을 한다.

(8) 토론 종결
(9) 선택 표결

8. 기타

그 밖의 의사진행 규칙은 일반적인 회의 진행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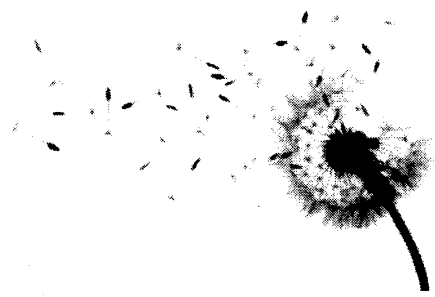
< 별첨 >

1. 대의원들이 할 수 있는 주요발언의 종류

(1) 질문 발언
회의 진행과정에서 잘 모르는 사항을 문의하는 발언
(2) 의사진행 발언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회의 진행자나 대의원들에게 어떻게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발언
(3) 규칙 발언
회의의 진행이 정해진 의사진행세칙이나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규칙의 정확한 근거를 들어 하는 발언
(4) 찬반 발언
제출된 의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하는 발언
(5) 신상 발언
자신의 개인적 이해나 요구가 있을 때 전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사적인 내용을 말하는 발언

2. 의안의 종류

(1) 원안
조직적인 질서와 계통을 통하여 모아진 의견으로 흔히 중앙상임위원회의의 상정안을 지칭한다.
(2) 개의안
제출된 원안과 다른 의견을 개진하여 이를 원안보다 먼저 찬반을 묻기 원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재청이 있으면 진행자는 이를 먼저 표결한다.
(3) 수정 동의안
제출된 원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제출하는 것으로 재청이 있으면 진행자가 원안 제출자나 전체 대의원의 동의를 구하여 수정 동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
(4) 이견안
원안과 달리 의안 상정요건을 갖추어 제출된 안으로 이때 안건 처리는 원안과 이견안에 대한 표결로 처리한다.



전문, 강령

전여대협 전문

전여대협은 여성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봉건적 사상과 자본의 지배논리를 타파하고 여성의 자주성 실현으로 인간해방을 실현하고자하는 50만 여학도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전여대협은 일제 식민지 치하의 여성들의 민족해방투쟁을 계승하여 미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역사의 주인인 청년여학생의 힘과 지혜를 모아 여성해방을 실현한다.

전여대협 강령

(1) 여성의 성침탈에 앞장선 미국과 일본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간섭과 침략을 막아내고 민족 자주권을 회복하여 여성의 자주화, 조국의 자주화를 이룩한다.

(2) 이천만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고 사회전반의 민주주의 실현의 걸림돌과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하고 국민들이 자주적, 창조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한 사회민주화를 실현한다.

(3)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아래 조국을 통일한다.

(4) 학원내 온갖 반민주적, 성차별적 교육과 제도를 반대하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여 학원자주화를 이룩한다.

(5)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제반 애국적 사회단체와 굳게 연대하여 공동투쟁한다.

(6)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제국주의 문화와 소비향락적인 문화를 척결하고 학원과 생활 속에서 건강한 민족, 민중적 문화를 일구어나간다.

(7) 50만 여학도가 앞으로 사회에서 민족중흥과 조국발전의 당당한 주체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서기 위한 학문의 습득과 단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8) 백만 청년학도와 통일단결하여 투쟁한다.

규약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의 규약은 강령의 요구를 충실하게 실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의 규약은 전국여대생 대표자 회의(건)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 민주 집중제의 조직운영을 기반하는 원칙과 규율이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전국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약칭 : 전여대협)이라 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전국 오십만 여학우의 통일 단결을 기반으로 여학우들의 학문, 투쟁, 생활 투쟁적 요구를 구현하고 이를 통하여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 실현과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 여성해방을 앞당기**제3조 (사업)**기 위해 투쟁한다. 나아가 보다 높은 전국 총여학생회 연합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강령에 근거하여 대표자 총회에서 사업의 내용을 결정한다.

제2장 조직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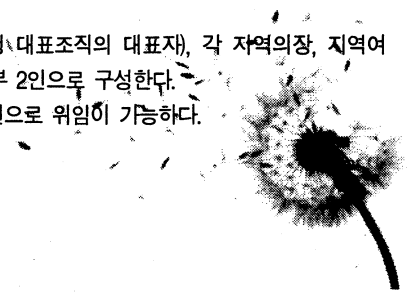
제4조 (회원규정)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전국 각 대학 총여학생회, 여학생 대표 조직으로 한다.
제5조 (구성체계) 본회의 체계는 전국단위 체계, 지구단위 체계, 총여학생회(기타 여학생 대표조직), 단대 여학생 조직, 과여학생회 조직을 가지며 본회 산하에 8개 지역, 1개 특별 지구를 둔다.
1)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강으로 구분한다.
2) 제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특별지구로 구분한다.
3) 각 지역은 지역 실정에 근거하여 그 지역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지구의 구성과 분화 또는 통합을 할 수가 있다. (단 중앙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인준을 받는다.)
제6조 (가입과 탈퇴)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대학 총여학생회(기타 여학생대표조직)단위로 한다.
2) 본회의 가입과 탈퇴는 각 지역, 지구체계의 가입과 탈퇴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제3장 회원의 의무와 권리

제7조 (권리) 본회의 회원의 본회의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본회 활동 전반에 참여 할 수 있고, 본회의 모든 활동과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개진권, 결정 참여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8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사수하고 본회의 활동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강령과 규약의 실현, 결정사항을 집행, 보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9조 (포상과 징계) 본회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제4장 조직의 체계의 운영

제1절 대표자 총회
제10조 (지위) 대표자 총회는 본회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최고 의사 결정기구이다.
제11조 (구성)
1) 대표자 총회는 각 대학교 총여학생회장, 총여학생회 부회장(기타 여학생 대표조직의 대표자), 각 지역의장, 지역여대협 간부 1인, 각 지구의장, 특별 지구 의장, 전여대협 의장, 전여대협 간부 2인으로 구성한다.
2) 부득이한 경우 참석하지 못하는 대표자의 위임장은 각 지역 의장의 승인으로 위임이 가능하다.
제12조 (권한) 대표자 총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본회의 강령과 규약의 제정 및 개정을 한다.
2) 본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3) 본회의 사업전반에 대한 심의, 인준, 의결을 한다.



4) 조직의 해산을 결정한다.
5) 기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한다.
6) 위의 권한 중 강령의 재, 개정, 규약의 재, 개정, 의장 선출 및 탄핵, 조직의 해산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은 대표자 총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제13조 (정기대표자 총회와 임시 대표자 총회)
1) 정기 대표자 총회는 1년에 1회로 중앙 상임위원회가 개최한다.
2) 임시 대표자 총회는 의장, 중앙상임위원회 1/3이상, 대표자 1/4이상의 발의에 의해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정기 대표자 총회의 회기는 3일을 경과할 수 없으며, 임시 대표자 총회는 매년 당 2회 이내로 하며 회기는 2일을 경과할 수 없다.
4) 정기 대표자 총회는 정기 대표자 총회 20일 전에 공고하며, 임시 총회도 15일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확히 하여 공고한다.

제2절 중앙상임위원회

제14조 (지위) 중앙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상설기구이다.
제15조 (구성) 중앙상임위원회는 위장과 8개 지역의장으로 한다.
제16조 (권한) 중앙상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중앙상임 위원회는 본회의 전체 활동을 관장하고 대표자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강령과 규약에 의거하여 운영, 지도하고 책임을 진다.
2) 중앙상임위원회는 중앙집행간부를 임명한다.
3) 중앙상임위원회는 대표자 총회를 개최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4) 중앙상임위원회는 대표자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한다.
5) 규약이나 시행세칙에 대한 해석의 권한을 갖는다.
6) 본회의 재산을 관리한다.
제17조 (운영) 중앙상임위원은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의장 및 중앙상임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의장이 소집한다.

제3절 의장

제18조 (지위) 의장은 본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한다.
제19조 (권한) 의장은 본회 전반에 관한 지도와 관리를 한다.
제20조 (선출) 의장은 대표자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거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두어 정한다. (단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중앙상임위에서 권한 대행을 선출한다.)
제21조 (임기) 의장의 임기는 당해 대표자 총회로부터 중앙상임위가 구성 될 때까지로 한다.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2조 (지위) 본회의 정책연구, 생산, 집행을 담당하고 총화한다.
제23조 (구성) 집행위원장, 정책국장, 연사국장, 조직국장으로 구성하고 그 외에 더 필요한 역할에 대해서는 중상에서 책임있게 결정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한다.
제24조 (역할)
중앙집행위원장은 본회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며 집행을 책임지고 총화한다.
정책국장은 본회의 모든 정책을 연구 생산한다.
연사국장은 타 계층계급과 연대 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제5절 임시체계

제25조 (지위) 임시체계는 전기의 사업과 체계에 대한 계승과 혁신사업과 당기 대표자 총회까지 사업을 수행하는 체계이다.
제26조 (임시의장) 임시체계는 중앙상임위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 (의결체계) 임시체계의 의결집행체계의 지위와 운영은 정식체계로 규정하며 규약에서 정한 바 모든 권한을

가진다.

제28조 (사업)

1) 계승과 혁신 사업을 수행한다.
2) 해당시기 일상전반 사업을 수행한다.
3) 대표자 총회를 선전한다.

제5장 재정

제29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당년 3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28일로 한다.
제30조 (회비) 본회의 재정은 정기회비, 특별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1) 정기회비는 각 학교 학생회비의 3%로 한다.
2) 특별회비는 중앙상임위의 결의로 편성하여 각 지역(지구)별 또는 학교별로 구분한다.
3) 대의원 회비는 중앙상임위의 결의로 편성하여 각 대의원이 정기총회 때에 총화한다.
제31조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관리는 중앙상임위의 승인을 받아 집행위에서 관리한다.
제32조 (예산과 결산)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대표자 총회에서 심의, 인준, 의결한다.
제33조 (회비관련 징계) 본회의 관련된 징계는 시행세칙을 두어 정할 수 있다.

제6장 시행세칙

제34조 (시행세칙) 본회의 시행세칙은 본회의 필요에 따라 대표자 선출, 선거, 포상과 징계, 특별기구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규약에 근거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장 상벌

제35조 (포상)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회원에 대하여 포상한다.
제36조 (징계) 본회의 규약을 위반하거나 조직에 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제명, 자격, 정지, 직위해제, 공개사과,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7조 (회의성립) 모든 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제38조 (의결) 제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탄핵이나 강령의 제 개정, 조직의 해산에 있어서는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 (표결) 인사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단 출석인원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대표자 총회의 의결을 얻는 즉시 의장이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규약의 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과 절차 및 관례에 따른다.
제3조 (제정) 본 규약은 1995년 4월 30일에 제정한다.



시행세칙

시행세칙1 - 대표자 선출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의 대표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둔다.
제2조 (대표자) 본회의 대표자는 각 학교 총여학생회장(기타 여학생대표자조직의 대표자)으로 한다.
제3조 (위임권 행사) 부득이한 경우에 참석하지 못하는 대표자의 위임은 각 지역의장의 승인으로 위임이 가능하다.

시행세칙2 - 선거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의 의장 선출을 위해 둔다.
제2조 (선거방식) 본회의 선거방식은 보통, 비밀, 직접, 평등으로 한다.
제3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본회의 대표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구성)
1)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중앙 상임위에서 중앙상임위원 1인은 선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대표자중 3인으로 한다.
2) 본회의 선관위는 대표자 총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구성한다.
3) 본회의 선관위는 선관위장의 선임에 따라 사무, 홍보, 행정 등 선거 사무에 필요한 집행간부를 구성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한다.
4) 본회의 선관위는 선거 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시행세칙에 근거한 기술실무 집행간부를 구성하여 선거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 (목적)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선출을 공정, 신속하게 진행하고 의장을 중심으로 오십만 여학우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6조 (업무와 권한)
1) 본회의 선관위는 상기 제5조의 목적 실현을 그 업무로 한다.
2) 본회의 선관위는 상반기 명부확인 절차를 가진다. 후보자 추천은 총회에서 확인된 선거인 명부에 명시된 자로 제한한다. 단 투표(대표자 총회)까지 선거인 명부 추가 확인을 통해 투표권을 인정한다.
3) 본회의 선관위는 일반 사무경비를 제외한 포스터, 자료집 등 각 후보자의 선거활동을
보좌하는 제반경비를 공탁금으로 받는다. 이 제정은 선관위장과 선거본부장들 간의 협의회를 통해 관리하며 대표자 총회 시 보고한다.
제7조 (업무와 권한의 정지) 본회의 선관위는 의장선출과 동시에 그 업무와 권한이 정지되면 즉시 해체한다.

제3장 의장선출

제8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1) 본회의 대표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 본회의 대표자중 간선직 대표자는 추천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회의 대표자중 간선직 대표자들과 지구 여대협 이상의 중앙집행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예 : 회의, 문건)
제9조 (후보자 및 입후보자 자격)

1) 본회의 의장 입후보는 선거일 15일 전에 선관위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록한다.
2) 본회의 입후보자는 추천서(대표자중 1/3의 추천), 자천서와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3) 1인 이상의 후보 출마 시 대표자는 복수 추천을 할 수 있으며 복수 추천을 한 경우 중앙선관위는 해당 대표자의 복수 추천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그 효력을 판단한다.

제10조 (선거공고)
1) 본회의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선거일 13일 전까지 본회의 회원에게 후보자를 통보한다.
2) 본회의 선관위는 대표자 총회 소집공고와 동시에 선거공고를 내도록 한다.

제11조 (선거본부구성) 본회의 의장 출마자는 지역 여대협 의장의 자격을 갖는 대표자를 선거본부장으로 하는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선거운동 및 유세)
1) 각 후보자는 선관위의 지휘하에 선거운동 양식을 협의하여 전개한다.
2)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3) 단독 출마의 경우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14조 (보궐선거) 의장의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시에만 중앙상임위 중 권한대행 1인을 선출한다.

시행세칙3 - 회비 관련 징계

1) 기간 : 임시체계의 발족의 기간으로부터 총회 이후 한 달까지로 한다.
2) 기간 내 미납부 하였을 시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8기 전여대협 평가(안)

0. 8기 전여대협 평가에 앞서

평가를 하는 것은 단지 한번 뒤돌아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면,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8기 전여대협을 평가하는 것은 바로 현재 전여대협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전여대협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 과정을 거쳐 전여대협은 어디까지 와있으며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9기 전여대협이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중심적인 방향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8기 전여대협 평가에서 대학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대학 총여학생회가 어떻게 활동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빠뜨린 전여대협 평가는 수박 겉핥기일 뿐이며, 자신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다짐이 없는 전여대협 평가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지난해 총여학생회의 활동을 돌아보고, 이후 전여대협 활동에 대해 더욱 의지를 높이는 평가를 만듭시다.
전여대협 건준위 6년, 그리고 그 후 전여대협 본 조직을 세운지 8년….
14년이라는 시간동안 여학생들이 걸어온 평탄치 않았지만 자랑스러운 길을 되돌아보며, 9기 전여대협을 더욱 빛내어 가는 평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Ⅰ. 대중투쟁 과제

{{ 대중투쟁과제 총평 }}

<성과>

① 총여학생회의 여러 사업과 투쟁에서 여학단위 자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에 있어서, 지역에서 여성단체들과 함께 공동의 사업을 만들어낸다든지, 대학에서 여학단위 자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학단위의 정체성을 가지고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에 앞장설 것에 대한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예년보다 반가부장제 투쟁을 더욱 전면적으로 펼쳐내면서 여학단위 자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으며, 여성농민들의 쌀투쟁에서도 여학단위가 주동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② 특히 반가부장제 투쟁과 관련해, 각 대학에서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자 노력했습니다.
대학마다 반가부장제 투쟁을 이전보다 더욱 중요한 사업으로 비중있게 계획하면서, 여성문화제 등의 대중사업을 통해 반성폭력운동을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 월경 및 생리대 면세운동, 성에 대한 인식, 성매매 근절 투쟁 등 더욱 다양한 내용의 반가부장제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방도를 동원해 진행하게 되면서 더 큰 성과를 냈습니다.

<한계>

① 많은 대학에서 총여학생회의 1년의 계획 및 시기별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각 대학 총여학생회가 진행한 사업과 투쟁에서 성과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사업에 머무르거나, 지속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② 각 대학에서 총여학생회 사업과 투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집행력이 부족하였습니다.

<과제>

① 반드시 총여학생회 1년의 계획, 시기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② 총여학생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1차적인 과제로 나섭니다.
③ 학우들의 의식이 어떠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학우들과 소통하는 과정으로 총여학생회 사업과 투쟁을 진행해야합니다.

1. 6 · 15 공동선언 이행 투쟁

1) 성과

① 분단 최초로 남북여성통일대회,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를 성사한 것은 여성통일운동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6 · 15 공동선언을 이행해가는 민족의 시간표를 앞당겼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1991년 이후 계속되던 남북여성들의 교류는, 2002년 6 · 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더욱 열려진 통일환경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높아진 남북여성교류는 2001년 8 · 15 남북공동행사 속에서 '남북여성통일대회' 개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여성통일대회가 성사되기까지는 결코 순탄치 못한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에 대한 긴장고조책동과 반통일세력들의 반북모략책동 등으로 남북여성통일대회와 남북해외청년학생통일대회는 여러번 무산의 위기에 직면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가 드높아감에 따라 역사적인 남북여성통일대회와 남북해외청년학생통일대회는 결국 7천만 민족의 통일염원에 의해 성대하게 성사되었습니다.
여성대회와 청학대회가 성사됨으로써, 여성통일운동의 전망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가야한다는 목소리들이 곳곳에서 만들어졌으며, 무엇보다도 아시안게임과 함께 7천민 민족들의 통일염원 의지가 표출됨으로써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반통일음모를 한풀 꺾고 6 · 15 공동선언을 이행해가는 민족의 시간표를 앞당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여대협은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를 함께 준비해왔으며,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일기원 플랑 제작사업'을 통해 여학우들의 통일의지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② 6 · 15 공동선언 이행투쟁에 있어 여학단위의 자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한층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총노선에서부터 6 · 15 공동선언 이행투쟁에 있어 여학단위의 자체적인 내용을 마련해나가고 실천해나가는 것을 중심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시기별 사업계획에서도 꾸준히 고민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다음의 몇 가지 사업을 통해 그 시도와 노력이 한층 높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보였습니다.
40일 비상 시기 <6 · 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61500 여학우 선언운동>을 제출하고, 이를 여러 대학 여학우들 속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폭넓은 여학우대중들과 함께 진행하는데 부족함은 나섰지만, 분단으로 인한 여성들의 고통, 남북여성의 교류, 여학우들이 통일의 주체로 나설 것에 대한 내용을 담았던 <61500 여학우 선언운동>은 여학단위에서 자체의 내용으로 6 · 15 공동선언 이행투쟁을 여학우들과 실질적으로 벌이는 실천활동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그 의의가 큰 만큼 각 대학의 여학 일꾼들이 통일과 여성해방의 관계를 더욱 심도깊게 고민하고 연구해야할 과제를 스
스로 찾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40일 비상 시기부터 방중에 이르기까지 6 · 15 공동선언 및 여성과 통일 등의 각종 교양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여성과 통일은 이전보다 더욱 깊이있는 내용으로 제출됨으로써 여학단위 자체의 투쟁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되었습니다.
지역단위에서 6 · 15 공동선언을 이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와 노력들도 이어졌습니다.
6 · 15 민족통일대축전을 앞두고 서여대협은 <여성이 만드는 통일세상>이라는 마당사업을 서울시민들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8 · 15 민족통일대회를 앞두고 남여대협은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들과 함께 <광주전남 여성통일 큰잔치>를

광주시민들과 함께 진행하는 등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에 있어 여학단위 자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려는 사업과 투쟁은 지역단위에서도 예전보다 더욱 활발히 벌어졌습니다.
8·15에서도 작년에 이어 2회 여성통일한마당을 통일연대 여성위원회 차원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던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하반기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성사하는 과정에서, 비록 부족함은 있었지만, 다시금 여성이 통일에 더욱 앞장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에 있어 여학단위의 자체적인 내용을 마련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한층 높게 진행되었습니다.

③ 전체적인 투쟁흐름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여학생운동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던 성과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 반미자주화 투쟁, 반일자주화 투쟁 등에서 여느 때보다 더욱 활발한 사업과 투쟁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여대협은 이러한 전반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여학생운동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여는 남북해외청년학생통일대회 청학 준비위원회>와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청학위원회>에 여학우들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참여하면서, 비록 반통일세력들의 탄압에 의해 전여대협 참가단의 행사 참여는 불허되었지만, 남북해외청년학생통일대회를 성사해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해공동행사와 6·15 민족통일대축전, 8·15 민족통일대회 등에서 전여대협 참가단을 구성하여 남북여성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에 의한 장갑차 살인만행 규탄 8·13 전국 대학생 행동의 날 준비위에 참여하여 대학생 행동의 날을 성과있게 진행한 이후, 계속적으로 학생대책위에 참여하면서 살인미군 처벌투쟁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벽실천, 지역실천, 대학 내 살인미군 처벌투쟁과 관련된 집회, 의식화 등을 헌신적으로 진행해온 일꾼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말 고이즈미 일 총리의 방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반일투쟁에서 전여대협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 고이즈미 방한 반대, 일제강점하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대학 총여학생회장, 총학생회장 선언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④ '8기 전여대협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위해 전국적으로 신문광고, 탄원서 등 공동의 행동을 취한 것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전여대협 강화에 있어 의의있는 것이었습니다.
8기 전여대협 의장에 대한 연행에 분노하며 지역별 연속신문광고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남여대협, 부경여대협 등 지역여대협이 있는 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 경인, 충청, 대경 등 지역여대협이 세워지지 못한 지역까지 모두 하나같이 '전여대협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의 의지를 모아 연속신문광고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탄원서를 작성하면서 8기 전여대협 의장을 석방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투쟁은 10기 한총련 의장에 대한 재판 과정에 놓여있으면서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해 UN인권위에 제소하는 투쟁과 함께, 10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⑤ 살인미군 처벌 투쟁 속에서 대중에 대한 믿음, 승리에 대한 확신을 높여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효순이, 미선이를 깔아죽인 살인미군에 대해 미군법정이 무죄를 판결한 이후, 미군 장갑차 살인사건과 미군법정의 행태 등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는 끝간데 없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동계올림픽 금메달 강탈사건에서부터 예전보다 훨씬 대중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한 미국에 대한 분노는 결국 한 네티즌의 제안을 통해 '촛불시위'로 촉발되기 시작했으며, 날이 갈수록 촛불시위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 더욱 많은 계급계층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 단위에서도, 해외에서도 촛불시위가 날이 갈수록 퍼져가면서 4천만 민중들의 반미자주화 진출은 해일이 밀려오듯 한반도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중들의 반미자주화 물결 속에서 무엇보다 큰 힘이 된 것은 바로 민중들의 자주성이며, 살인미군 처벌 투쟁 속에서 미군 철수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2) 한계

① 하반기 들어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에 있어 집행력이 점차 높아가는 과정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내용마련에 있어 구체적인 집행대책이 부족했으며, 실제로 각 대학의 집행력은 높은 수준으로 높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행과 여성해방에 대한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현실에서, 투쟁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어떻게 짜들어가서 실질화시켜낼 것인가에 대해서 잘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대책을 수립하지 못함으로써 장기적으로 6·15 공동선언 이행에서 여학단위 자체적인 내용을 마련해오는 과정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교양자료를 제출하는데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각 대학에서는 전여대협에서 제출한 계획이 잘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② 6·15 공동선언 이행의 장기적 전망속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라기보다는 시기별로 해야할 투쟁 중심으로 투쟁과제를 제출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중앙이나 단위가 정세에 대한 인식과 전반 6·15 공동선언 이행 전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으로 인해, 6·15 공동선언의 장기적 전망을 내다보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장기적 전망보다는 시기시기 나서는 투쟁을 중심으로 투쟁과제를 제출했던 한계가 나섰습니다.

③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 반미자주화 투쟁 등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학단위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등 주동적이지 않은 모습이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 반미자주화 투쟁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성문화제 속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든지, 실천단이나 새벽실천, 지역실천 등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등 주동적, 헌신적으로 진행한 대학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학에서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주동적으로 투쟁을 준비하고 주체적으로 임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많은 대학들이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 반미자주화 투쟁에 있어 여학단위 자체적인 의조직화 목표나 투쟁계획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관성적으로 투쟁을 대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④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성사해내는 전 과정에서 더욱 주동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남북여성통일대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의, 정세적 의의에 비추어보았을 때, 남북여성통일대회를 더욱 대중적으로 준비할 요구가 나섰습니다. 더 많은 여성민중들과 남북여성통일대회의 중요성에 대해 합의하고, 더 많은 여성민중들의 힘으로 남북여성통일대회 행사 자체를 성사하는 것은 물론이요, 통일국면을 더욱 활짝 열어가야했습니다.
이런 요구 속에서 전여대협의 몫이 더욱 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실천적으로 여성민중들을 만나가야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여대협의 응당한 몫을 해내기에는 실제로 많은 부족함이 나섰던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여성통일대회의 중요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토론하지 못하였으며, 통일기원 풀랑 제작사업을 제외하고는 대학 자체적으로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성사하기 위한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성사한 이후, 이를 더욱 주동적인 정세로 만들어가기 위한 후속활동이 이어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여성통일대회에 참가한 단위 외에는 후속활동을 전면화하지 못하였습니다.

⑤ 여성민중들의 반미정서가 고양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보하고 높여내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이 부족하였습니다.
미군법정이 살인미군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한 이후, 여성민중들의 반미정서는 누구보다도 더욱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아지는 여성민중들의 미국에 대한 분노를 더욱 본질적인 분노로 모아내고 더 상승시키기 위한 우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이 상당히 부족하였습니다.

3) 과제

①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여학단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용을 마련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을 이행해가는 전반 정세와 투쟁의 큰 틀 안에서, 여성들이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에 더욱 주체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학단위의 내용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당장 많은 것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조급하지 않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용을 마련해가야할 것입니다.

② 남북여성통일대회 성사, 살인미군 처벌 투쟁의 과정에서 드러났듯, 이후 더 많은 여성운동단위들과 함께 투쟁해갈 수 있도록 노력해가야할 것입니다.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성사해내는 과정에서 여러 여성운동단위들에서 여성통일운동의 전망에 대해서나, 이북 여성들에 대해서나 관심이 높아지고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인미군 처벌 투쟁에 있어서도 몇몇 여성운동단위들이 자기단위 깃발을 가지고 투쟁에 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더 많은 여성운동단위들이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과 반미자주화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후 전여대협은 더 많은 여성운동단위들이 공동선언 이행 투쟁, 반미자주화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나가야할 것입니다.

③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 반미자주화 투쟁 등에서 각 여학단위의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더욱 주동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후 조성되는 정세에 대해 깊이있게 인식하고, 정세에 대한 절박성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 이행의 큰 틀 안에서 여학단위가 더욱 주동적으로 투쟁에 임하기 위한 자체적인 계획을 마련해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2. 반가부장제 투쟁

1) 성과

① 전여대협 중앙의 반가부장제 투쟁계획이 적절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첫째, 반성폭력 운동을 중심으로 제출하면서 현실성을 담보하였습니다.

학우들의 의식을 가장 잘 높여낼 수 있는 반성폭력 운동에 집중하고, 성매매, 위안부, 호주제, 기지촌 등 여러 사안별 반가부장제 투쟁을 역량에 맞게 진행할 것을 제출한 것은 현실에 맞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둘째, 반성폭력 운동을 구체적으로 제출함으로써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을 그리려는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② 대부분의 대학에서 새내기사업, 문화제 등의 사업을 통해 반성폭력 운동을 중심으로 한 반가부장제 투쟁을 예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학마다 반가부장제 투쟁을 이전보다 더욱 중요한 사업으로 비중있게 계획하면서 대학별로 반성폭력과 관련한 의식화사업을 예년보다 더욱 많이, 다양한 방도로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여성문화제를 진행하는 등 대학별로 대중사업이 활발히 벌어졌으며, 대중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성폭력의 내용을 중심으로 의식화사업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또한 여러 대학에서 문화제, 성문화캠페인, 영화제, 강연회, 대자보, 신문, 화장실 소식지, 마당사업, 퍼포먼스, 서명운동, 대동제 주막에 격문 붙이기 등 훨씬 다양한 방도를 동원해 반성폭력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반성폭력 운동 뿐만 아니라, 호주제 폐지, 월경 및 생리대 면세운동, 성에 대한 인식, 성매매 근절 투쟁 등 더욱 다양한 내용의 반가부장제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③ 전체 일꾼들에 대한 반성폭력 의식화 사업이 성과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기초부터 전체 일꾼들에 대해 강연사업 등을 통해 반성폭력 의식화를 많은 대학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4월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통해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 문제제기를 하고 교양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통해서는 한총련 대의원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남성중심적 언어에 대한 문제제기도 진행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체 일꾼들에 대한 반성폭력 의식화 사업이 더욱 많은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체 일꾼들 속에서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여갈 수 있는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습니다.

④ 반가부장제 투쟁이 단위의 역량에 맞게 적절히 진행되어왔습니다.
올초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참사를 계기로 성매매 방지법 제정투쟁을 위시로 해 성매매 근절 투쟁이 예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산 화재참사를 소재로 모의법정을 진행한 대학도 있으며, <대학 내 여성주의자 연대모임>에 주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성매매 캠페인을 여러 차례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500차 수요집회를 전국 집중으로 진행하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선전의식화를 진행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투쟁을 만들어왔습니다.
또한 지난해보다 더욱 많은 단위에서 여름 기지촌활동을 참가하였으며, 특히 남여대협의 경우 지역차원에서 참가단을 꾸리고 사전학교를 진행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각 대학에서 여성문화제 등의 대중사업을 통해 호주제 폐지, 부모성 함께쓰기(안쓰기)운동, 월경, 생리대 면세운동, 성에 대한 올바른 관점, 성매매 근절 투쟁 등 다양하고 폭넓은 반가부장제 투쟁을 만들어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 한계

① 무엇보다 반성폭력 운동에 있어 여학단위의 전문성을 높여내는데 부족함이 나서고 있습니다.
올초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여학단위의 준비정도를 높여내는 것을 핵심과제로 제출한 이유는, 반성폭력 운동은 전문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당위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투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학단위에서는 아직 성폭력에 대해 깊이있게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반성폭력 의식화사업의 내용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반복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성폭력에 대해 피상적 이해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의식화해야할 내용도, 예전보다 더 깊은 얘기도 학우들과 함께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② 반가부장제 투쟁을 대중사업에서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아직 의식화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성폭력 운동을 비롯해 반가부장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것은 바로 '의식화사업'입니다. 학우들의 기존 관념에서 성/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꿔내고 높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두번 의식화를 진행해서 인식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과도한 욕심일 수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의식화 사업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의식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대중사업을 위한 일회성 의식화 사업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한 반가부장제 투쟁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우들의 의식이 지속적으로 높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③ 각 대학의 반가부장제 투쟁 성과가 구체적으로 총화되지 못함으로 인해 조직적 성과로 남기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④ 학우들에게 반가부장제 투쟁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한 반가부장제 의식화를 진행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아직은 총여학생회가 학우들에게 내용을 얘기해주는 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학우들과 함께 부모성안쓰기운동을 해본다든지, 생리대 면세를 위한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거도 하였으나, 학우들이 반가부장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실천과제를 제시하는데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는, 가장 크게는 반가부장제 투쟁과 관련해 우리의 준비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식화사업 자체가 아직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의식화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⑤ 학생운동 내 성폭력 근절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것이 중요하게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내어오지 못했습니다.
전체 일꾼들에 대한 반성폭력 의식화가 진행되고, 전체 일꾼들 속에서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여갈 수 있는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되면서 점차적으로 학생운동 내 성폭력 근절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이, 한두차례 의식화를 진행한다고 해서 근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하반기 전여대협 사업계획에서 이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것을 결의하였고, 계획 수립을 위해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성폭력 의식조사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⑥ 반가부장제 투쟁에 있어서 집행력이 담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반성폭력 선전의식화 자료 제출, 반성폭력 학칙 연구사업 등 결속짓지 못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3) 과제

① 무엇보다 반성폭력운동에 대한 여학단위의 준비정도를 높여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나섭니다.
여학단위가 반성폭력운동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냄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의식화 내용과 방도를 마련해야 하며, 반성폭력 운동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② 반가부장제 의식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③ 이후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근절의 장기적 ·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합니다.

④ 집행력을 한층 높여야 합니다.

3. 여성민중생존권 쟁취 투쟁 및 연대사업

1) 성과

① 상층연대사업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여대협에서 꾸준히 상층 연대사업을 해온 결과, 여러 여성단위들과의 연대사업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8기 전여대협 의장 석방,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에 대해 많은 여성단체들이 처음으로 공동의 목소리를 내며 신문광고와 탄원서를 진행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② <3·8 세계여성의 날 투쟁기획단> 및 <대학 내 여성주의자 연대모임>을 결성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계기로 여성노동자투쟁을 주요하게 가져가야한다는 요구성과, 대학 내 여학생운동이 공동투쟁을 만들어감으로써 대학 내 여학생운동의 조직적 전망을 만들어가야한다는 장기적 요구성에 기반하여 <3·8 세계여성의 날 투쟁기획단>을 결성했습니다. 기획단 차원으로 3·8 투쟁을 준비하면서 공동의 요구안을 내걸고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위에서 얘기한 두 가지 요구성을 실현시켜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되었습니다.
특히 3·8대회가 끝난 이후 바로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내 여성주의자 연대모임>으로 전환하여 계속적으로 모임을 가져갔던 것이 큰 성과입니다.

③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일연대 여성위원회를 꾸려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반미여성회, 자주여성회, 전여농과 함께 통일연대 여성위원회를 처음 꾸려내었습니다. 새롭게 꾸려진 통일연대 여성위원회는 남북여성통일대회를 주체적으로 성사해내었으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정기적 회의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통일연대 여성위원회를 꾸려냄으로써, 이후 통일운동에서 여성들이 더욱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한 성과가 있습니다.

④ 호주제 폐지캠페인, 대선, 여농학연대 등을 통해 상층 및 기층의 연대사업이 나름의 성과를 내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호주제 폐지 캠페인에 여러 대학이 참여하고,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대선과 관련해 여성단체들과 공동캠페인을 벌여내었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농학연대가 진행되면서 부경지역을 중심으로 여농학연대를 더욱 활발히 벌이기 위한 강연회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층의 연대사업이 전면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지만, 몇몇 계기를 통한 연대사업은 나름의 성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2) 한계

① 여성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에 대한 전반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전망성있게 수립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간 여성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지 못함으로 인해 예년에 진행했던 여성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의 수준과 그다지 달라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연대사업과 관련해서도 전망성있게 계획과 흐름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② 연대사업 중요성 인식 부족
여성민중생존권 쟁취 투쟁과 연대사업이 기층 대학에서 예년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데서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주체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여학단위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 지라도 연대사업을 중요하게 인식한다면, 자기 단위의 수준에 맞게 자기 단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대사업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학단위 내에서 연대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절박한 요구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 주체도 명확히 세워지지 못한 경우가 많고 연대사업이 거의 부진했습니다.

③ <대학 내 여성주의자 연대모임>에 대해 전체 여학단위 내에서 공유되지 못하였습니다.
<대학 내 여성주의자 연대모임>을 결성하고 이후 계속적으로 모임 및 실천활동을 가져오는 과정이 있었으나, 이를 전체 여학단위 내에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공유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총화하는 것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연대모임>을 꾸리게 된 배경과 이후 사업 등에 대해 전체 여학단위 내에서 공유되지 못하였던 아쉬움이 남습니다.

3) 과제

① 여성민중생존권 쟁취 투쟁 및 연대사업에 대한 전반 인식이 낮고 기층의 역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이후 이 투쟁에 주목을 돌리기 위한 과제를 단계별로 잘 세워가야할 것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여성민중생존권 쟁취 투쟁과 연대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여러모로 어려운 조건에서는, 당장 생존권투쟁과 연대사업을 전면화하자는 식이 아니라, 차근차근 이러한 분야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4. 양대 선거 투쟁

1) 성과

① 양대 선거 투쟁에서 여학단위의 자체적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됐습니다.
8기 총노선을 수립할 때부터 양대 선거 투쟁을 더욱 주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고민들이 이어졌습니다. 상반기에는 양대선거투쟁에서 여학단위의 내용성을 마련하고자 선거연구모임을 꾸렸으며, 몇차례의 모임을 가지면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에 기반하여 6·13 지방선거 전여대협 지침과 2002 전여대협 대선 투쟁 계획을 마련하면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비롯해 여학단위의 독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양대 선거투쟁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선투쟁계획에 따라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대선후보 여성공약을 분석하는 등의 과정에서도 여학우들의 삶에서 출발하는 내용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② 6·15 공동선언 이행에 있어 유리한 정치지형 창출, 민족민주 단일후보를 통한 민족민주세력 총단결이라는 전반 민족민주진영의 대선투쟁의 목표를 성과적으로 결속지었습니다.

③ 민주노동당 여성선거운동본부가 꾸려진 성과가 있으며, 여기에 전여대협이 조직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하면서 대선투쟁을 주체적으로 만들어온 성과가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여성노동자들의 장기파업 노조, 전여대협

등의 단체들이 모여 민주노동당 여성선거운동본부를 꾸렸습니다. 여성선거운동본부는 서울여성유세단, 전국여성유세단 등으로 나뉘어 활동을 하면서 민주노동당에 대한 해설과 민주노동당 여성정책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펼쳤습니다.
민주노동당 여성선거운동본부는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뜻을 같이 하며, 특히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이 여성민중들의 정당으로 자리매김해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여대협은 조직적으로 결합하여 여성유세단 활동을 진행하면서 대선투쟁을 주체적으로 만들어온 성과가 있습니다.

④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몇몇 대학에서 여성단체들과 대선 공동캠페인을 벌여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 한계

① 양대 선거투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양대 선거투쟁은 여성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정치세력화해가는 과정에서나,

② 양대 선거투쟁에 대한 계획이 늦게 제출되었습니다.

③ 양대 선거투쟁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각 단위에서 자기계획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기층의 활동이 미진하였습니다.
각 대학, 각 지역에서 대선투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선투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있고, 전여대협 양대 선거투쟁 계획이 늦게 제출되고, 준비정도가 낮다보니, 양대 선거투쟁에 대해 자기계획을 세운 단위가 거의 없었습니다.

④ 민주노동당 여성선거운동본부 활동에 기층이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못하였습니다.

⑤ 대선투쟁이 공유되지 못했던 한계가 나섭니다.
민주노동당 여성선거운동본부의 활동 상황, 지역 및 대학에서 진행되는 선전의식화 사업, 여성단체들과의 공동 캠페인 등 대선에 즈음하여 진행된 각종 사업과 투쟁들이 전국적으로 공유되지 못했습니다.

⑥ 그로 인해 여학우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정치참여를 높이는데 전여대협이 주체적인 역할을 크게 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지난 대선을 통해 20대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투표율도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학우들의 정치의식 또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여학우들의 정치의식 및 정치참여를 높이는데 전여대협이 주체적인 역할을 해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5. 대중의식화 사업

1) 성과

① 상반기 정기적인 의식화 자료 및 시기에 맞는 의식화 자료 등을 제출함으로써 의

식화사업의 기동력과 내용성이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금요유인물을 상반기 동안 거의 매주 금요일마다 제출했었고, 5월까지는 조성되는 정세적 계기마다 성명서를 내는 등 의식화사업의 기동력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새내기신문 및 교양자료 등도 제출하면서 내용성을 높이려고 했던 시도와 노력들이 보였습니다.

②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의식화 사업이 이전보다 더 발전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반성폭력, 호주제, 월경, 생리대 면세운동 등 반가부장제 투쟁에 관련된 의식화 사업이 이전보다 더욱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총여 신문 발간 등 의식화 사업이 이전보다 일상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2) 한계

① 의식화 사업에 대한 전반 계획이 부족함으로 인해 여전히 의식화 사업이 지속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 의식화 사업을 진행한 정도를 보면, 대중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의식화 사업을 제외하고는 의식화 사업이 꾸준히 되지 못하고 일회성에 그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중의식화-대중조직화-대중투쟁으로 이어지는 대중운동의 원리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면서 의식화를 대중사업 성사의 수단으로 인식한 것, 그리고 대중의식화 사업의 중요성을 각인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구체적 대중에 기반해 구체적인 내용으로 의식화 사업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학우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가면서 의식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과, 여학단위의 전문성이 아직 부족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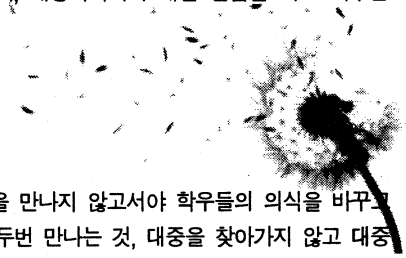
② 의식화 방도에 있어 참신함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의식화 사업이 아직도 대부분 대자보와 플랭카드에 의존한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 다양한 시도들도 조금씩 보입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의식화 방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유력한 의식화 방도로 활용되는 인터넷사업의 경우에도 원활히 진행하고 있는 대학이 그다지 없습니다. 모 대학에서 진행한 것처럼 그 대학 학우들이 많이 오는 사이트에서 학우들에게 메일을 보낸다든지, 혹은 메일사업 등에 대해 주를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우들의 정서를 파악하는 것과 더욱 깊은 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유인물 외에 성명서, 교양자료, 뉴스레터 등 전여대협 중앙에서 제출하는 선전의식화 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습니다.

④ 하반기 중앙에서 제출해야하는 대중의식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반기 전여대협 중앙에서 반성폭력 선전의식화 자료와 유인물을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각 대학의 안정적인 선전의식화 사업을 담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3) 과제

① 대중의식화에 대한 관점을 바로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중의식화가 이전보다는 일상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대중의식화를 대중사업의 성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우들이 사회를 보는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삶에서 나서는 여성억압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식화가 되어야 합니다. 대충 이 정도 선전하면 되겠지 라는 식이 아니라, 대중의식화에 대한 관점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되어야할 것입니다.



② 대중의식화의 주체를 마련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③ 학우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학우들의 의식을 높여나가자는 것이 바로 대중의식화 사업입니다. 학우들을 만나지 않고서야 학우들의 의식을 바꾸고 높여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여 대중사업에 즈음해 학우들을 한두번 만나는 것, 대중을 찾아가지 않고 대중

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모두 총여와 학우들의 거리를 더욱 멀게하는 것일 뿐입니다. 의식화 사업을 일회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학우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반드시 학우들과의 일상적인 만남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야 학우들의 의식을 점차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여학생회의 사업과 투쟁이 점차적으로 학우들의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우들의 의식을 상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의식화가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식화 사업의 지속적이고 일정한 방도를 마련해 이를 강제해나가야 합니다.

④ 일방적인 의식화 사업에서 벗어나 여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의식화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직도 의식화 사업이 어느정도 일방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 이상 여학생회가 학우들에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의식화를 학우들과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는 과정으로 만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식화사업을 학우들의 인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세우며 학우들의 인식을 점차적으로 상승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학우들이 단순히 얘기를 듣는 입장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⑤ 의식화를 다양하고 참신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인터넷, 강의실선전, 도서관 만남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의 학우들과의 만남에 대한 고민을 높여내어야할 것입니다. 또한 자보, 플랑 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이고 흥미롭게 의식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방도적 측면에서의 고민을 더 깊이 해나가야할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 사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나섭니다.

II. 조직사상운동

2002년 조직사상운동에 있어 전국 총여학생회의 현황은 전반적으로 사상성, 전문성의 수준이 낮고 기층이 취약하고 일꾼의 수가 적고 재생산구도가 원활하지 않아 전반 사업과 투쟁에 어려움을 겪고, 자주적 여학생운동론의 보강이 요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2002년 전여대협 조직사상운동의 목표는 중요하게
사상적 과제 : 전문성 강화, 사상성 강화,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보강,
조직적 영역 : 전여대협과 대학총여학생회의 장기적 계획(3년)수립, 일꾼혁신운동
그리고 내부적으로 한총련 내에서 전여대협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학습, 투쟁, 생활에서의 일꾼혁신운동을 제시하고, 학습의 구체적 계획 제출, 조직사업의 장기적 고민속에서 소모임과 과여발특위 사업을 핵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1. 성과

① 기층에서부터 조직사상운동의 절박성과 특히 학습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는 과정이 있었고 기층에서의 꾸준한 학습을 담보하기 위해 전여대협 중앙에서 시기에 맞게 학습자료, 교양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② 조직사업의 중장기적 발전 전망과 구체적 계획의 중요성을 각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전국적으로 소모임 건설이 활발하였습니다.
③ 객관적으로 아주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여대협이 나름의 사업을 펼치면서 지역여학생운동이 강화되는 토대가 향상되었습니다.
④ 2차례의 조직국 전국회의를 통해 기층과 함께 조직사상사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책읽기 운동'이라는 창발적인 사업이 마련되었습니다.
⑤ 2차례의 대의원 대회에서 성폭력에 대한 문서제출과 한총련 조직위 전국회의에서 '운동사회내 성폭력'에 관련한

교양과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한층련 내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여내는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2. 한계

① 학습자료, 교양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기층에서 학습이 내실있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② 전국적으로 소모임이 많이 건설되었으나 소모임의 자체적인 내용과 활동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핵심일꾼을 많이 남기는데 부족함이 많다.
③ 자주적 여학생운동론 보강을 위해 초벌 고민을 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자여론 보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지 못했습니다.
④ 실제로 여전히 학습, 생활, 투쟁에 있어 혁신되지 않고 있으며 일꾼 내의 문제로 기본적인 조직생활부터 해서 사업과 투쟁에 걸림돌이 되는 현상도 많이 나타났다.

3. 원인과 과제

① 조직사상운동의 주체를 반드시 세우고, 일상적이고 내실있는 지도사업이 절실합니다.
성과와 한계를 잘 살펴보면 기층에서의 조직사상운동의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중앙에서 아무리 구체적으로 계획과 내용을 제출해도 기층에서 집행이 안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주체가 있더라도 수준이 낮아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기층의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전여대협 운동에서 사활적인 문제인 만큼 반드시 조직사상운동의 주체를 세워야 합니다. 일꾼이 없으면 대표자가 주체가 되더라도 반드시 주체를 세워야 합니다. 또한 주체의 수준이 낮은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내실있는 지도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조직사상운동이 과학적으로 꾸준히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부터 내용마련과 점검총화까지 일상적이고 꼼꼼한 지도사업이 절실합니다.

② 주체역량에 맞게 연구사업을 잘 배치해야 합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 보강 사업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치면서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원인으로는 주체의 부족함과 조직상황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자주적 여학생운동보강 사업은 아주 중요하고 방대한 사업인 만큼, 아주 큰 결심을 가지고 역략을 집중시켜 치밀한 준비와 계획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앙의 역량과 기층의 역량을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의 역량으로 가능한가 또는 중앙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연구단위를 둘 것인가, 그리고 기층에서 발전적인 토론이 될수 있을
것인가 어렵다면 기층에서의 내실있는 토론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③ 운동가로써의 자세에 있어 걸리는 문제들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객관적이 여건이 매우 힘든 현실이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언제나 주체의 문제에 있습니다. 아무리 조직이 튼튼하더라도 일꾼간의 동지애와 일심단결이 실현되지 않으면 조직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물며 객관적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일꾼간의 문제가 겹쳐 학생회 활동이 거의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사업계획서와 학습자료, 교양자료를 잘 내더라도 일꾼간의 문제가 생기면 어떠한 성과도 내어올 수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일꾼간에 생기는 문제들은 운동가로써의 자세에 있어 부족한 부분으로 모두가 사상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시기 적절하게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④ 지역 여대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전여대협 운동의 대중화와 장기적인 조직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여학생운동 강화, 지역여학생운동 강화, 다양한 대학내 여성운동 조직과의 공동투쟁활성화가 요구됩니다.

여기서 선차적으로 되어야 할 것은 대학 여학생운동과 지역여학생운동의 강화입니다. 대학여학생운동과 지역여학생운동의 강화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각 대학 여학생회 조직에 있어서는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여대협운동은 최근들어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실정이 기층 대학에 대한 지도사업이 매우 중요하게 나서고 있는 만큼 지역여대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⑤ 조직사상운동 주체들의 모임 활성화가 중요하게 요구됩니다.

2002년 두차례의 전여대협 조직국 전국회의를 통해 핵심일꾼들이 핵심으로써의 역할을 다시금 자각하고 대학에서의 조직사상운동에 대한 결의를 서로 높여주는 성과, 그리고 조직사상운동의 난관을 헤쳐나가는데 있어
창발적인 고민(책읽기 운동)도 내어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조직사상운동의 성과는 실천에 좌우되는 만큼 핵심일꾼들에게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장에서 혼자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토론하면서 창발적인 고민도 생산하고 서로 점검·총화하면서 끊임없이 집단적으로 결의를 세워주고, 여기서부터 기층 대학 여학생운동조직발전의 출발점이 되며 전여대협 운동을 이끌어가는 핵심으로써의 책임감과 동지애로 전여대협 발전강화까지 내어올 수 있습니다.

⑥ 한총련 내에서 전여대협 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학생운동을 함께 고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주체역량의 고려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2002년 대의원대회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의식화, 그리고 한총련 조직위 전국회의에 결합하여 여성문제에 토론을 진행한 것은, 최근 그러한 흐름과 내용이 많이 부족했던 것을 생각하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총련 중앙에서부터 기층 골간조직에까지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층 총여학생회에서는 총학생회 및 대학 전체 운동에서 끊임없이 여학생운동에 대한 토론을 제기하며, 전여대협 중앙에서는 한총련 중앙 회의에서 전여대협 사업계획의 발제, 토론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은 한총련 사업계획서 안에서 전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국별 전국회의에 결합하여 전여대협의 사업과 투쟁에 대한 토론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직현황상 이것에 집중할 것인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총련 중앙조직의 현황은 부문계열 단위인 전여대협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역량이 부족하며 전여대협 또한 주체역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총련 중앙에서 전여대협 운동을 세밀하게 총화하고 함께 고민을 해나갈 주체가 없거나, 주체가 있더라도 현재까지 그러한 흐름이 오랫동안 끊어져 있던 상황에서 고민이 풍부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전여대협 중앙 또한 주체역량이 높지 못한 상황에서 이부분에까지 역량을 배치할 것인가, 오히려 전여대협 운동의 주체역량을 높이는데 선차적으로 역량을 집중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인 판단을 잘 해보아야 합니다. 이부분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한총련 내에서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과 투쟁을 전체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 계획과 당면해서의 대안도 필요합니다.

전반정세

)

1. 2002년 정세 총괄

2002년은 미국의 긴장고조정책, 6·15 공동선언 방해에 맞선 7천만 민족의 대단결이 빛났던 한해였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초부터 이북을 소위 '악의 축'으로 명명하고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핵태세보고서를 통한 이북을 포함한 미국의 '적대국'에 대한 선제공격 군사전략을 마련하였으며, 한미연합군사훈련, 림팩훈련 등 훈련명도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대규모군사훈련을 강행하면서 이북에 대한 긴장고조와 위협을 강도높게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수로 완공시기인 2003년이 다가옴에 따라, 10월 조·미 정치협상 이후 이북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하여, 이북에 대한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소위 '핵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횡포는 결국 94년의 제네바합의를 사실상 파기하였습니다.
이남에 대해서도 2월 부시가 방한하여 '주한미군 영구주둔' 운운하며, 이남에 대한 영구 지배음모를 노골화하였으며, 무엇보다 효순이, 미선이를 장갑차로 깔아죽이고도 사과 한마디없이 살인미군에게 무죄를 판결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모독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악의 축' 망발로 남북관계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어온 미국은 남북청학대회, 여성대회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면서, 심지어는 남북철도, 도로연결을 방해하고, 금강산 관광객도 주한유엔사령부의 '사전허가'없이는 통행할 수 없다는 둥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에 있어서도 음으로 양으로 막아나서면서, 6·15 공동선언에 대한 방해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악랄한 행동에 우리 민족은 7천만의 거족적인 투쟁과 대단결로 맞섰습니다.

지난해 동계올림픽 금메달 강탈로 시작된 미국에 대한 전국민적 분노의 표출은 부시 미 대통령의 방한으로 더욱 거세차게 불타올랐습니다. 이러한 이남 민중의 반미감정은, 효순이, 미선이를 깔아죽이고도 사과 한마디 안하더니 급기야는 살인미군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림으로써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으로 폭발되어, 사상 최초로 주한미대사관을 에워싸는 범국민적인 촛불시위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남 민중의 대중적 반미투쟁은 이전까지 미국의 지배권안에 속해있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전세계를 깜짝 놀래키며 이북, 해외에까지 번지고 있으며, 작은 농촌마을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적 반미투쟁은 미국으로 하여금 이남을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북에 대해 직접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이북은 '선군정치'라 불리우는 군사력의 강화로 미국의 전쟁위협을 결정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북은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독일, 벨기에 등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있으며, 제3세계와의 관계도 확대하는 등 계속적으로 진행해온 전방위적 외교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의지를 전세계에 과시하는 '아리랑' 축전도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이러한 이북의 일련의 행동들은, '반테러전선'으로 자신의 정책에 반기를 드는 국가들을 다시금 제 손아귀에 넣으려 했던 미국을 역으로 포위하는 과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핵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억지주장과 전쟁위협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핵확산금지조약을 통한 세계지배정책에 파탄을 내며 공세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 민중들의 투쟁은 무엇보다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빛을 발해왔습니다.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 여성대회, 통일아시안게임 등. 더군다나 최근 미국이 집착하고 있는 '핵소동'에 이르러서는 각계민중들이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 포기 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의 과정은 남과 북의 우리 민족 대 미국이라는 대결구도로,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분쇄하고 6·15 공동선언을 더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가려는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2. 2003년 정세 개괄

2002년 힘차게 진행되어온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는 2003년 더욱 치열한 양상을 띠고 전개될 것입니다.

1) 2003년은 이북과 미국의 최후대결전이 펼쳐질 것입니다.

미국의 전쟁불사 발언, IAEA의 유엔안보리 상정 등으로 미국은 계속되어온 핵전쟁위협의 고삐를 더욱 당기면서, 이북이 열어놓은 조미정치협상을 계속적으로 미루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94년 제네바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미국이요, 결국 제네바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도 자기네들인 미국으로서는 조미정치협상에 나오는 것 자체가 제네바합의를 대신하면서 더욱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체제를 합의하는 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미협상을 최대한 미루면서도 미국의 세계지배전략 중 하나인 핵확산금지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북에 대한 위협을 더욱 강도높게 할 것이며, 이남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을 영구주둔시켜 이남을 더욱 장악지배하기 위한 음모를 벌여놓을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이북의 대응은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북은 이미 미국의 핵확산금지체제 붕괴를 예고하며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억지주장과 전쟁위협에 굴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확산금지조약을 통한 세계지배정책에 파탄을 내며 공세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군정치'로 표방되는 이북의 군사력은 이미 98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보유를 암시하는 '백두산 1호' 발사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미국의 직접적인 전쟁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클린턴 정부시절 전쟁도발 1시간 전까지의 상황까지 갔다가 결국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을 이길 수 없다는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미국이 전쟁을 포기했던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선제공격전략을 채택한 부시 정부라 할지라도 쉽사리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북의 군사력과 외교력을 바탕으로 미국을 조미정치협상에 끌어내오고, 미국으로부터 북미불가침조약을 받아내기 위해 경주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과 이북의 대결로 2003년의 정세는 극단점으로 치달으며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고, 여기서 미국은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큰 변수로 정세에 작용할 것입니다.
이미 이북이 미국에 조미정치협상을 제안한 상황이며, 결국 미국이 걸고넘어지고 있는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미정치협상은 필수적인 것으로 되었습니다. 하기에 2003년에는 조미고위급회담이 진행되면서 조미간 정치군사적 문제가 일괄타결되느냐, 아니면 우리 민족의 운명을 내어주느냐 하는 대결전이 진행될 것이며, 이 대결전의 결과에 따라서 큰 폭의 정치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2) 이남민중의 반미투쟁을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반미자주역량으로 모아가야하며, 이는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키는데 크게 작용하면서, 한반도 정세변화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2002년의 획기적 사변은 바로 '광범위한 민중들의 반미투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계올림픽 금메달 강탈사건으로 불이 붙고 살인미군 처벌투쟁으로 폭발된 민중들의 대규모 반미투쟁은 각계각층 대

중들로부터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이남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범죄를 규탄하며 철군을 요구하는 대중적 반미투쟁은 이북과 해외동포사회에서도 힘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 북, 해외에서 전개되고 있는 대중적 반미투쟁의 동원규모와 투쟁열기, 그리고 지속성과 다발성을 생각한다면, 한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끈질긴 대중적 반미투쟁을 전개하는 위대한 자주민족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네바합의를 깨뜨리고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범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규탄투쟁도 더욱 크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남에서 반미투쟁의 대중화 추세는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며, 광범위한 민중들의 반미투쟁은 곧 광범위한 반미자주역량으로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핵소동'의 긴장상태 속에서 진행된 대선에서 미국이 '소산호' 문제를 정치화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미국에 대한 반감을 오히려 더 드러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민중들의 반미자주역량으로의 힘이 커질수록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점차 미국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게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미국의 정책에 장애로 나서게될 것입니다.

3)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족대단결에 기초한 민족공조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파탄내는데 있습니다.

2003년의 조미대결전은 단순히 이북과 미국의 싸움이 아닙니다.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미국과 이에 맞서 민족의 자주를 지키고자 하는 7천만 민족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민족공조를 통해 북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6·15 공동선언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이행해가는 것입니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급속도로 확산된 민족대단결과 반미기운은 미국이 두려워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북에 대한 적대적 이데올로기가 유명무실화되고 전쟁할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기 보았듯이 미국의 내정간섭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특사 방북이라든가, 계속된 남북장관급회담, 민간급 통일대회 등 남북공동선언을 지키고 이행하기 위한 남북간의 의지가 모아졌었습니다.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것은, 곧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며, 미국의 위협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족공조로 북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북미불가침조약은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핵문제' 해결의 가장 정당한 방도일 뿐만 아니라, 현재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없애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이남의 군수통수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북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를 소멸하는 것으로 되므로,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6·15 공동선언을 더 높은 수준에서 이행해가는 과정으로 모아내어야하는 것입니다.

4)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국가보안법 철폐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남의 반미자주역량을 온 국민의 반미자주역량으로 확대하는 것은 지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또한 새 정권의 수립으로 인한 국민들의 민주주의적 개선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반미자주세력은 주체역량을 비약적으로 축성해야 하는데, 여기서 한총련의 이적규정을 벗는 것은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국가보안법 철폐는 사회민주화를 실현하는데 기본적인 것이며, 현재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야할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 및 반미자주화 투쟁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국면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기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벌여가야합니다.

5) 전여대협은 살인미군 처벌투쟁을 더 많은 여학우들과 함께 진행하고, 북미불가침조약체결의 요구를 여학우들 속에서 얘기하면서 6·15 공동선언을 더욱 주체적으로 이행해가야합니다. 또한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투쟁에 누구보다 앞장에 서야할 것입니다.

반가부장제 정세

1. 2003년 반가부장제 정세 및 투쟁에 대한 총적 전망

반가부장제 정세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성운동계에서 얘기해왔던 성매매방지법, 호주제폐지 등의 사안에 이전보다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여대협은 무엇보다 학우들이 쉽게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학내 반성폭력 운동을 가장 중심에 놓고 진행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진행해왔던 것보다 더 다양한 내용의 반가부장제 투쟁을 대학별로 만들어가야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매매와 호주제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좀 더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반가부장제 운동은 대학별 학우들의 의식수준에 기반하여 다양하고 창조적인 각도와 방법으로 진행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별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전여대협 총노선에서는 개괄적인 정세와 기본적인 투쟁에 대해서 제출합니다.)

- 반가부장제 투쟁에서 전반적으로 꼭 진행해야할 것은, 학우들의 의식을 파악하는 사업입니다.
- 또한 일상의 가부장제를 일상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학우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반가부장제에 대한 여학일꾼들의 전문성이 낮은만큼, 반가부장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전제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2. 2003년 반가부장제 정세

1) 반성폭력 운동

반성폭력 운동이 더욱 활발해질수록 더욱 다양한 곳에서, 더욱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신고되고 공개화됩니다.
2003년에는 지난해보다 더욱 다양한 계급계층에서 더욱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불거져나올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성폭력 운동은 성폭력 사건을 공개하고 이를 해결해가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공동체(예를 들면 대학, 직장과 같이) 내에서의 성폭력적인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것이며, 공동대응과 연대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반기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현행 성폭력특별법은 여성계의 요구로 1993년에 제정된 이후 2번의 개정을 거쳤으나, 여전히 성폭력의 정의가 협소하고, 피해자 보호절차가 부족하며, 친고죄만으로 성범죄 고소가 성립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토론회, 의원입법 등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에 대한 대응활동이 올해에는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대책위원회 등 각종 성폭력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기간 진행되어왔던 공동체 문화 속의 성폭력, 군사주의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더 많은 대학에서 더욱 다양하고 구체적인 현실과 관련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2) 학내 반가부장제 투쟁 및 여성 학자투쟁

(학내 반가부장제 투쟁은 반성폭력 운동과 여성문화를 가장 중심적인 과제로 하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반성폭력 운동을 제외한 학내 사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학내 사안과 관련한 반가부장제 투쟁은 여학우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의의가 큼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중요성만큼 다양한 사안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몇몇 대학이 아닌 전체 대학 차원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끈질기게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도 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후에는 학내 사안과 관련한 반가부장제 투쟁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학내 반가부장제 투쟁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대학별 상황에 따라 정세를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이남사회 대학의 여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대학별로 여학우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절실한 문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별로 여학우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내 반가부장제 정세를 파악하고, 학내 반가부장제 운동을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도입과 대학교원임용 양성평등위원회 설치를 포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마련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즈음부터 국·공립대 신규 교수 채용 때 여교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3년마다 채용 목표를 제시하고, 해마다 그 이행실적을 공표하는 여교수 채용 목표제가 도입되게 됩니다. 법안에는 채용계획 수립만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채용비율 등은 새로 구성되는 대학교원 임용양성평등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게 되기 때문에, 각 대학본부에 이를 구체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성매매 근절 투쟁

올해는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인수위는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올해 여성분야 우선 실천사업으로 상정하였으며, 상반기 안에 성매매방지 종합대책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어설프게 성매매 실태조사를 진행한 여성부에서 이미 '민간단체와 함께 조사를 하는 등 조사방법과 내용 등을 보완해 2003년부터 다시 실태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며, 여성단체 등의 여성조직이나 개별인사 등이 전국 곳곳에 대한 성매매 실태조사를 계속적으로 벌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성매매의 심각성과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유린 실태는 일부 밝혀졌지만, 전국적으로 그 실태가 밝혀져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재판의 국가배상 판결에 힘입어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지난 4월 국가와 군산시, 포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국가와 포주들의 유착관계 등이 밝혀질 것입니다.

2001년 이후 계속적으로 진행해왔던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대국회 압력활동 등 입법 추진 활동이 주로 진행될 것이며, 성매매의 심각성과 성매매방지법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 토론회 등 대국민 홍보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해 이전보다 관심이 더 높아지고 활동도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성매매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그리 높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계는 성매매에 대한 의식화를 중심으로 하면서, 2002년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에 대한 법정소송투쟁을 진행하며 국가의 성매매 방기 책임을 묻고 성매매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일깨워주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3년에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투쟁 외에도, 성매매 방지 및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모색하고, 성매매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활동이 더욱 왕성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성매매 근절을 위한 토론회 등 구체적 방도에 대한 모색작업은 진행중에 있지만, 2003년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등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 프로그램이나 대책마련에 대한 요구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활동이 민간차원으로나, 정부 차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자가 헌법재판소에 낸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위헌신청에 대한 심판이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1년에 2번 공개되는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은 소소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4) 호주제 폐지 투쟁을 비롯한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대한 투쟁

호주제를 폐지해나가는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당선자가 '호주제 1년 내 폐지'라는 공약을 세우면서,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정부측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성부는 호주제를 3단계에 걸쳐 폐지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호주제 폐지 전 단계로 친양자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2004년 총선 직후 호주제 폐지 추진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단체 학계 법조계 여성부 등을 주축 으로 대책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가 호주제 폐지 실행시기를 내년 봄으로 정한 것은 각계 의견을 망라하는 시간이 필요한 데다 총선 전 호주제 폐지를 추진할 경우 보수층의 반발로 정치권이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으로 얘기되고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2001년 상반기 호주제에 의한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내린 후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었던 호주제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이 올해 내려질 전망입니다. 호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법률가들이 그 위헌성에 대해서 강변해왔기 때문에 호주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건이 유리하게 조성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호주제 폐지에 반대해온 세력들이 있으며,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호주제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대책위를 총선 이후에 꾸리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서 어느정도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고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여성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대체 입법안은 '가족별 호적편제'로, 이제까지 호주제 폐지 시민모임 등에서 주장해온 '1인1적제'와 다릅니다.
친양자제도의 경우에는 도입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계속 그래왔듯이 '친양제제도'의 도입과 '호주제'의 폐지 자체가 치권 세력다툼 등에 밀려 호주제 폐지에 대한 논의와 정책 결정을 하는데 얼마든지 난관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모으기 위한 캠페인과 문화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특히 호주제 폐지 이후 대안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질 것이며, '가족별 호적편제'와 '1인1적제'에 대한 논란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해 정부와 공동으로 대책기구를 구성하게 될 전망이며,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에 대한 토론회와 의원입법 추진 활동을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 운동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호주제 폐지를 주제로 한 미디어활동도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된 이후, '위헌'으로 판결이 나온다면 이에 대해 국민적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내용을 얘기하게될 것이며, 이를 실제로 폐지하기 위한 의원입법활동을 더욱 왕성하게 펼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전여대협 또한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여론을 불러일으키는데 함께 해야 합니다.

호주제 외에도 성차별적인 유족연금제도를 개정하기 위한 활동이나, 부부공동재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활동 등이 진행

될 수도 있겠습니다.

5) 여성 평화 · 통일운동

한반도의 정세가 더욱 격해질 2003년도이기에 여성운동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사업과 투쟁이 많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핵위기의 주범인 미국을 규탄하는 투쟁에서부터 반전평화운동, 평화군축운동 등의 투쟁이 각계각층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5.24 평화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등이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계속되어오고 있는 살인미군 처벌투쟁과 관련해 2003년에도 여성들의 투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SOFA개정에 있어서 여성인권보호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활동도 만들어질 것이다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해 진행되었던 역사적인남북여성통일대회의 성과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여성통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와 활동이 더욱 활발히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 여성의 정치세력화

지난해 6 · 13 총선과 12 · 19 대선에 이어, 2004년에 진행되는 총선을 대비하여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움직임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개발기구의 '2002년도 인간개발보고서' 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의 여성의석 비율은 5.9%로 조사가능국 161개국 가운데 겨우 131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2004년 총선에서 여성국회의원의 수를 양적, 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할당제를 포함한 선거 관련 법제도적 보완, 정치관계법 개정 등을 위한 공청회 등의 활동이 이어질 것이며, 정부 행정기관을 비롯해 공직사회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감시활동 등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또한 2004년 총선을 직접적으로 대비하여 여성후보들을 발굴하는 사업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성단체연합을 중심으로 여성예산확대운동도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예산확대운동은 노무현 정권의 공약이행에 대한 감시활동과 함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할 것에 대한 요구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단순히 선거시기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2004년 총선은 더욱 구체적인 여성민중 속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유리한 계기가 될것이기 때문에 전여대협 또한 이를 준비해가야할 것입니다.

7)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투쟁

2003년에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음모는 계속될 것이며, 일본 정부에 의한 사과와 배상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2003년에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의 정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합니다.
ILO는 유엔의 다른 기구와 달리 총회 의결절차를 통해 회원국에 구속력과 강제력을 가진 권고채택 및 조사단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정부에 상당한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회원국으로서 1932년에 이미 제29조 강제노동협약에 비준했기 때문에 조약을 준수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29조 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일본정부로부터 공식 사과와 피해자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직접적인 구속력 때문에 일본측은 막강한 로비력을 발휘하며 안건 상정을 막고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측의 로비로 인해 번번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다가, 지난해 비로소 노동자그룹 회의에서 잠정 의제로 채택되었서 '2003년에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일본의 협약 제29조 위반 사례를 다루기로 노동자그룹과 사용자그룹이 공동선언하기로 했다'고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전례에 비춰볼 때 이 전망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사용자

그룹의 적극적 협력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노·사·정이 단결해 반대 로비를 벌이는 일본측에 의해 다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003년 ILO총회에서 '위안부 의제 채택' 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측 노·사·정 대표단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지만 일본에 비해 우리 대표단의 협조관계는 상당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적인 문제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끌어내기 위한 유력한 방도가 바로 계속 추진중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입니다. 특별법 제정은 그 자체로도 진상규명 작업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근거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다, 특별법을 제정하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법적인 강제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위안부' 문제 해결투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ILO 총회는 매년 6월 초에 개최되므로 이때를 전후하여 총회에서 '위안부'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묻혀있었던 일제시대 '기업위안부'와 관련해 당시 일본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위한 '기업위안소' 운영을 정책적으로 장려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가 공개돼, 이와 관련하여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을 기업위안소 위안부들에게까지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8) 기타 반가부장제 투쟁

대학 내, 그리고 사회적으로 구체적 여성의 현실과 관련한 문화운동은 더욱 확대발전할 것입니다.
TV, 영화, 언론 등의 미디어에 대한 기동적인 문제제기는 계기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9기 전여대협 1년 나기(안)

<9기 전여대협 1년나기>는, 9기 전여대협 3대 기조—8대 과제—주요사업으로 제출합니다.
1년의 주요 방향과 과제를 압축하여 명확하게 설정하고, 구체적 계획과 일정은 분기별, 월별로 계획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제출하는 <9기 전여대협 1년나기>와 <2003년 정세전망>을 통해 9기 전여대협의 전체 방향과 사업계획이 얘기될 것입니다.

Ⅰ. 9기 전여대협 3대 기조

1. '학우들과의 소통'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삼자.

학우들 속에 살아있는 총여학생회, 학우들의 생각과 요구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총여학생회를 만드는 것은 1년 내내 견지해야할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자기 대학에 맞는 방법으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우들과 소통해나갑시다. 학우들과의 소통을 모든 사업과 투쟁의 0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2. 반성폭력 운동, 반미반전 운동을 1년 동안 중심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가자.

현재 여학우들의 삶에서 가장 직접적인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는 성폭력을 대학내에서 근절시켜가고 학우들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반성폭력 운동>, 2003년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라크 전쟁과 대북적대정책을 여성의 이름으로 반대하고 여성의 힘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반미반전운동>을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올해 총여학생회가 그 무엇보다 집중해야할 투쟁입니다.
반성폭력 운동, 반미반전운동을 1년 동안 중심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갑시다. 그리고 그 외 다양한 투쟁과 사업은 정세와 대중사업 등을 통해 계기적으로 만들어갑시다.

3. 소모임 활성화, 총여학생회 기층단위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자.

사람이 모여드는 총여학생회를 만드는 것은 현재 여학생운동의 현황에서 사활적인 과제입니다. 대학별 상황에 맞게 소모임을 활성화하는데 집중하거나, 단대/과 여학생회(부) 등 총여학생회 기층단위를 활성화하는데 전력을 다 합시다.

Ⅱ. 9기 전여대협 8대 과제

10대 과제를 제출하는 것은, 각각의 과제를 모두 똑같이 실현하자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과제의 포괄적인 내용안에서 대학별로 계획을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 학우들과의 소통> 과제에 대해, 우리 대학에서는 이러저러한 구체적인 과제와 사업을 계획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웁시다.

1. 학우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며, 학우들의 의식과 요구를 바탕으로 사업합시다.

여러 사안과 총여학생회 활동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우들의 생각에 기초해 총여학생회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총여학생회만의 일방적인 선전으로는 학우들의 의식을 높여낼 수 없으므로 학우들과 일상적으로 토론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총여학생회 활동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1) 학우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구조 만들기

2) 온라인(인터넷) 활동영역 넓히기

3) 학우들의 의식을 토대로 사업의 중심적인 내용 마련하기

2.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반성폭력 운동을 다양하게 펼쳐냅시다.

1) 반성폭력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학우들과 함께 토론하고 의식화합시다.
학우들과 함께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토론하고 의식화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학우들의 이해를 점차 높여 가야 합니다.
- 구체적 내용 : 성폭력의 본질, 판단기준, 공동체 내의 성폭력적 문화, 대처방법 등 대학 학우들의 의식정도에 맞게

2) 학내 반성폭력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한 학자활동을 진행합시다.
- 대학본부 차원에서 반성폭력 정책을 마련하도록 총여학생회에서 요구해야 합니다.
- 반성폭력 학칙 개정 사업

3)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등에 대한 토론 및 교양
- 한총련 홈페이지를 통한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근절 관련 기획연재,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관련 주제 사이버 토론, 운동사회에서 가부장제 뿌리뽑기 내용으로 기획연재
-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관련 대학별 강연

3. 여성의 요구로 반미반전 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6.15 공동선언 이행 운동을 대중적으로 펼칩시다.

1) 학우들이 대중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행동을 기획합시다.
대학별 인터넷 행동 / 여학우 집중(공동) 행동

2) 반미반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학우들과 함께 공유합시다.
- 미국의 전쟁정책에 대한 내용
- 여성들이 전쟁에 반대해야하는 이유, 전쟁이 여성에게 남긴 것(역사적으로) 등
- 미군 장갑차에 의한 故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3) 6·15 공동선언 관련
- 6·15 공동선언 발표 3주기 사업 및 6·15 민족통일대축전 / 8·15 민족공동행사
- 남북여성통일대회 / 8·15 여성통일한마당
- 특히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3년 동안의 남북 여성의 교류 등 여성통일운동의 성과를 학우들과 더욱 대중적으로 공유

4. 계기를 살려 여성취업, 반가부장제 운동, 여성학자사업에 대한 내용을 대학별 상황에 맞게 학우들과 함께합시다.

앞서 <3대 기조>에서 밝혔듯이, 반성폭력운동과 반미반전운동을 1년 내도록 진행하되, 그 외 다양한 사업과 투쟁들을 계기를 살려 진행합시다. 호주제, 군사주의 문화 등 다양한 반가부장제 운동의 내용을 정세에 따라, 혹은 대중사업 속에서 학우들과 공유합시다. 그리고 여학우들의 취업문제, 여성학자사업 등에 대해 취업워크샵, 학자투쟁 등 계기에 맞게 진행합시다.

1) 여학우들의 취업에 대한 사업을 주체적으로 진행합시다.
여학우들의 취업에 대한 의식 및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바탕하여 여학우 취업 관련 사업을 진행합시다.
대학 취업정보센터, 여대생취업지원센터 등과 연계하거나, 여학생 취업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대학 상황에 맞게 기획해봅시다.

2) 계기를 살려 호주제 폐지, 성매매, 군사주의 반대 등 다양한 반가부장제 운동의 내용을 학우들과 공유합시다.
① 호주제와 성매매와 관련한 소식, 문화제나 실천활동, 설문조사 등의 계기를 살려 호주제, 성매매에 대한 내용을 학우들과 공유합시다.
② 학우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실천을 기획합시다. (부모성 함께쓰기 등)
③ 학우들의 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가부장제(군사주의 문화 등)에 대해 일상적인 생활문화운동을 펼칩시다.

3) 대학 상황에 맞는 여성학자사업을 만들자
대학별로 여학우들의 생활과 의식을 토대로 여성학자 사안을 도출합시다. (예 : 여자화장실, 여성예산 및 기금 조성 등)
여학우들의 생활과 의식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여성학자 사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5. 대학 상황에 맞게 소모임 사업 혹은 총여학생회 기층단위를 활성화합시다.

소모임을 꾸리고 활성화시키는 목표를 잡거나, 단대/과 여학생회 등의 총여학생회 기층단위 활성화를 목표로 잡는 등 대학 상황에 맞게 집중적으로 사업할 목표를 잡읍시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1) 소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1) 소모임이 없는 대학은 소모임을 꾸립시다.
2) 소모임 주체 모임 - 대학별 / 지역별
3) 소모임 운영에 대한 토론과 학습, 계획 수립 등으로 소모임 운영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자세한 것은 소모임 운영 관련 문서 참고)

(2) 단대/과 여학생회 등 총여학생회 기층단위 활성화를 위해
1) 단대/과 여학생회가 없는 대학은 단대/과 여학생회(부)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합시다.
- 단대/과 학생회와의 간담회, 단대/과 여학생일꾼 모임, 단대/과 여학우들과의 만남 등
2) 단대/과 여학생회와 정기적으로 만납시다.
단대 여학생회가 있는 대학의 경우, 총여학생회 중앙운영위를 꾸준하게 열어냅시다. 과 여학생회가 있는 경우, 과 여학생회(부)장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어냅시다. 이런 모임을 다채롭게 꾸며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6. 더 많은 학우들이 총여학생회 주체로 활동할 수 있게, 모든 방법을 활용합시다. (총여학생회에 사람을 남기기 위한 모든 방법을 적극적으로 진행합시다.)

7. (총)여학생회 일꾼들의 공동생활을 알차고 활기차게 꾸리고, (총)여학생회 일꾼들부터 여성학을 심도있고 즐겁게 공부하고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합시다.



1) (총)여학생회 일꾼들의 공동생활을 알차고 활기차게 꾸려야 합니다.

2) 여학생운동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활동을 개시합시다.

여학생운동의 내용을 마련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 토론과 학습을 진행하고, <전여대협 여학생운동 토론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모아나갑시다.

8. 총여학생회 체계를 확대 및 안정화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단위 학생회[과여학생회]와의 공동사업을 상황에 맞게 만들어냅시다.

III. 9기 전여대협 주요 사업

1 시기별 주요 사업 (시기별 흐름으로 제출. 전여대협 전체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제출)

<3·8 세계 여성의 날>
<전여대협 총회> - 5.9~10
<봄농활>
<5.30 反성폭력 문화제>
각 대학에서 상반기 동안 진행한 투쟁과 사업의 성과를 모아 전여대협 차원의 반성폭력 문화제를 열어낸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제출
<5월말 전여대협 출범식>
<6·13 미군 장갑차 살인사건 희생자 故 신효순, 심미선 1주기 ~ 6·15 민족통일대축전>
<여름농활>
<여름 기지촌활동>
<전여대협 여름 강좌 및 수련회 / 여학생운동 토론회> (가)
전여대협의 발전 전망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기 위한 여학생운동 토론회를 열어낼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제출
<12월 (차기) 총여학생회장단 모임>
<겨울 기지촌활동>

2 그 외 주요 사업 (연중 진행할 주요사업 및 대학별 상황에 맞게 시기를 정하는 사업)

1. 연중 지속적, 정기적인 학우 소통[의견수렴] 사업
2. 새내기사업
3. 대학별 여성 문화제 / 여성 특별주간 : 핵심 내용은 반성폭력, 반전평화
4. 대학별 취업 워크샵
5. 인터뷰 사업
전여대협은 1년 동안 인터뷰 사업을 통해 여러 대학의 모범들을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 대상 : 각 대학 및 지역에서 진행된 모범
- 인터뷰 주체 및 방식 : 그때그때 모범의 대상에 따라 총여학생회나 단대 여학생회, 지역여대협 등에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전여대협 홈페이지 <인터뷰>를 비롯, 여러 홈페이지에 올려 전국적으로 알립니다.
- 인터뷰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 사업의 준비과정, 잘 진행된 요인, 이후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틀거리를 전여대협에서 제출하고, 그때그때 더 구체적인 내용을 첨가하여 진행합니다.

9기 전여대협 예산안

회비	지출
*정기회비 평균 500만원×0.03×20개 대학 = 300만원 *대의원 회비 45명×7만원 = 315만원 *그 외 특별 회비 및 기타 수입 = 85만원	*사업비 정기총회 10만원 출범식 30만원 반성폭력 문화제 200만원 여름농활 20만원 여름강좌 및 수련회 100만원 여학생운동토론회 10만원 6.13 효순 미선 1주기 추모 10만원 6.15 3주년 기념사업 10만원 8월 여성통일한마당 30만원 남북여성통일대회 참가비 지원 40만원 차기 총여학생회장단 모임 20만원 그 외 사업비 30만원 =510만원 *각 종 회비 통일연대 여성위원회 한총련 =50만원 *활동비 의장님 8개월 × 5만원 = 40만원 간부 8개월 × 3만원 × 2 = 48만원 =88만원 *홈페이지 이용비 11,000 × 12 =13만 2천원 *사무용품비 =38만 8천원
총 700만원	총 700만원

